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5년도 포어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 50일간 전도와 기도운동 '95 비전 2000운동 한달 앞으로

### 태신자에게 '복음'의 내용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한 장면이 나온다(행2:37-42). 베드로 설교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라고 자타가 공인한 유대인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비로소 처음으로 복음을 접한 것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은 사도들의 시대 뿐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좋은 소식(福音)이다.

<비전 2000운동>은 21세기가 되기 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종족이 많고 있으며, 우리 주위에도 구원의 소식을 구체적으로 들어보지 못한 이웃이 있다. 한편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 심



지어 교회에 발을 들여 놓은 사람 중에도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도 없지 않다.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음을 뿌리자는 것이 <비전 2000운동>의 정신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복음화될 것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전 2000 운동> 50일간은 여러모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며 아울러 그 일을 능력과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 기도

에 힘쓰는 기간이다.

우리교회는 1991년 교회 창립에 앞서 7주간의 특별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을 다졌고, 기도를 시작한 지 50일째 되는 11월 24일에 교회창립예배를 드린 바 있다. 그 후에도 해마다 교회 창립 일 50일 전이 되면 <비전 2000운동>을 선포하고 기도와 전도운동을 전개해 왔다.

올해도 다음 달 10월 8일(주일)에 발대식을 갖고 50일간의 전도와 기도운동의 행진을 시작한다.

우리는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비전 2000운동>기간 동안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전도대상자(태신자)의 목록을 정하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열리도록 기도하는 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우리의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만큼 관련이 있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도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보아야 할 일이다.

## 제 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

우리 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주최하는 목회자 신학세미나 제 8학기가 지난 4일(월)에 개강했다. 강남 YMCA 대강당에는 전국에서 온 목회자들로 가득찼다. 이번 학기에는 지난 5학기부터 계속해 온 제 1교시 로마서 강해를 이담 안에서 상실된 인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된 새사람된 모습을 제시한 로마서 7장 ~ 8장을 통해 『현대교회와 인성회복』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심도있게 강해하는 법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제 2교시는 이 문제에 전문적 지식과 신앙을 가진 국내외 석학들을 초빙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인성회복 문제를 생각해 봄으로써 이를 위한 교회의 사명을 자각하며, 성경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특강으로 진행한다.

11월 6일까지 월요일마다 강단을 책임진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

학세미나를 통해 목회자들이 갱신되고, 한국교회의 강단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와 봉사로 후원해야 할 것이다.

창세기 강해



# 이삭의 가정이 주는 교훈

(27장 41절 - 28장 9절)

이종운 목사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는 가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 1차적인 요소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두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의 가정은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 메시야가 올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 하였고, 리브가는 남편의 실수에 대해 충고하려고 하기 보다는 이삭을 속여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간교하게 속였습니다. 이삭의 가정이 범한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1.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삭의 가정에 나타난 사건은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 것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역사를 볼 때에 전체를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일은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전략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을 때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삭과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내려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합작을 하여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지만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야곱이 복을 받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은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과 그 모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3절).

결국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만 에서의 마음에는 반항심이 점점 더 커져 갑니다. 구원받은 백성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법을 끝내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에 의해 왜곡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

어야 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잠19:21).

## 2. 거짓으로 얻은 열매는 인간을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고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며 기쁨을 주는데 악한 길에는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얻은 것, 혹은 남을 속여서 성취한 것의 결국은 무섭다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리브가는 야곱을 잃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생전에 다시 못보게 된 것입니다. 리브가는 위협하는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의 위협을 피해 자기 동생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도록 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리브가는 죽었고 야곱은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27:45)고 했지만 야곱 뿐 아니라 에서도 리브가의 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제 길로 갈 경우, 잠시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 같으나 오히려 모든 것을 잃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순종만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의기 당당합니다. 그러나 후일에 자기 자식들에 의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뼈 아픈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야곱은 라반에 집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 칠년간이나 머슴살이를 했지만 삼촌에게 속아서 레이와 결혼했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칠년이나 더 일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돌이키니 그 가정에 다툼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다른 사람으로 인해 속임을 당하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 야곱은 가만히 있었어도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던 부를 누렸을 터인데 자신의 피로 인해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다가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마는

어리석음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자신의 죄와 세상적 지혜를 다 동원합니다. 마치 사기꾼과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라고 하셨습니다. 도무지 은혜받을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야곱보다 더 간교하고, 이삭보다 더 미련하고, 리브가보다 더 악하고, 에서보다 더 형편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악한 길에 서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만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 ✦ 순례자 컬럼 ✦

## 낮은 데로 내려가야

인생살이는 곧 자리다툼이다. 집을 짓는 이는 좋은터를, 취직하려는 이는 요직에, 결혼도 명문가를 찾아하려고 눈독을 드리고 공방전을 벌인다. 심지어 죽은 후에까지도 명당을 찾아 묻히기를 바란다. 다행히 뜻을 이루어 좋은 자리를 차지한 이를 성공자 또는 승리자라 하고 그렇지 못한이를 실패자 열등자라고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리다툼을 하면서 서로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였고 그들의 부모 역시 자식을 위하여 그같은 청원을 주님께 드린 적도 있었다. 오늘날도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아 가장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러나 가장 좋은 자리는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다. 말 구유로 내려가지 않고서는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없으며 여러고로 내려가지 않고서는 도와줄 이웃을 만날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경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체 말라"고 가르치신다(롬12:16)

# 66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실제적 제안"

■ ...이 글은 지난 9월 1일 '한국장로교의 날'에 젊은 목회자를 위한 강좌에서 이종운 목사가 한 "21세기 목회전망과 한국교회 연합"이라는 제하의 강연 중 결론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

## A. 21세기의 목회는

- ① 하나님의 목회(God's ministry)여야 한다.
- ②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게 하는 말씀목회여야 한다.
- ③ 성령의 감화를 받은 목회자가 양을 사랑하되 주님 닮은 사랑의 목회여야 한다.
- ④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박고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큰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섬김의 목회여야 한다.
- ⑤ 배타적이 아닌 포용성있고 자기 권위만 주장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연합을 이루는 겸손의 목회여야 한다.
- ⑥ 역사와 사회 및 사명의식을 갖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 영적, 도덕적, 정신적인 면에서 사회를 이끄는 예언자적 목회여야 한다.
- ⑦ 지역사회 봉사, 해외선교에 대한 비전있는 목회여야 한다.
- ⑧ 대화, 상담, 치유를 통해 성숙한 신자들을 만

- 들어 경제사회에서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질 줄도 아는 전인교육의 목회를 해야 한다.
- ⑨ 평신도를 활성화하는 은사개발목회여야 한다.
- ⑩ 항상 자기 갱신을 통해 신선하고 진취적인 창조적 목회여야 한다.
- ⑪ 선배와 후배의 관계를 바르게 하여 교회 미래를 밝히는 약속있는 목회여야 한다.
- ⑫ 21세기에 대처하는 상황적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초점을 맞춘 목회여야 한다.

## B. 교회연합을 위한 과제들

한국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몇가지 실제적 제안을 해 본다.

- ① 교단간 강단의 교류 시행
- ② 인정된 신학교 간에 교수 및 학생 교류

- ③ 학점 인정을 하고 15학점 (또는 20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에게는 자파 교단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④ 연합 신학대학(Theological University)을 창설하여 같은 캠퍼스 내에 각기 다른 건물을 가지되 연합도서관 및 연합예배(Chaple) 등을 시도
- ⑤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 또는 교인 간에 연합 사업 추진(특히 성찬예식을 통한 한 몸됨을 확인)
- ⑥ 총회 시 상호 우정의 사절단을 파송하여 인사를 하되 중요 안건 설명
- ⑦ 한국교회 일치를 방해하고 있는 국제 기구와의 연대활동을 잠정적 보류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
- ⑧ 신학적 입장 차이를 사실대로 인정하고 공통분모를 찾아 상대방의 신학과 신앙자세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상호신뢰와 존중하는 자세로 임할 것
- ⑨ 목회자 재교육을 연합적으로 시도
- ⑩ 선교사들 파송 시 함께 협력(Partnership)
- ⑪ 국내 전도전략 공동 수립(개척교회 난립 지양)
- ⑫ 대 정부 및 사회문제에 공동대처



1



2

- 1 교회 갱신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임을 역설하며 열강 중인 이종운 목사
- 2 한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를 간구하는 목회자들
- 3 전국에서 온 목회자들로 붐비는 접수 창구
- 4 김밥을 싸기에 분주한 봉사자들의 손길
- 5 "무슨 차 드릴까요?" 영적인 갈증도 채우시길 바라며...
- 6 손발이 척척. 이제 능숙해진 배식 봉사

## 현장 이모저모

## 제 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 현장

1995. 10. 4.



3



4



5



6

# 교회 부지 가시화(可視化)되다

## 강남구 대치동 대치역 부근

### - 9월 3일 당회, 제직회 만장일치로 -

교회설립과 동시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새 예배당 지을 터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왔다. 분당과 하남시에 있는 대지를 각각 헌납한 성도도 있었고, 뼈를 깎아 마치는 건축현금도 줄을 이어왔다.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는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찾아 헤매었다.

지난 주일, 우리교회 당회는 마침내 새 예배당 지을 터를 확정하고 제직회의 동의를 얻었다.

위치는 강남구 대치동 대치역 부근. 강남의 아파트 밀집지역이며, 바로 옆에는 1500평의 공원이 있는데 그곳은 앞으로 4000평 규모의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

건축위원회(위원장: 홍정호 장로)는 지난 7일(목)에 계약을 마침으로써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교회부지가 우리에게 가시화되었다.

## ✽ 교의학고 소식 ✽

### 장년부

#### 야고보서 공부 시작

여름동안의 방학을 마치고 지난 9월 첫 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9월과 10월 두달동안은 이순환 목사를 강사로 야고보서를 공부하며, 11월부터는 김영한 목사의 강의로 성경공부를 하게 된다.

### 청년부

#### 총회 - 신입원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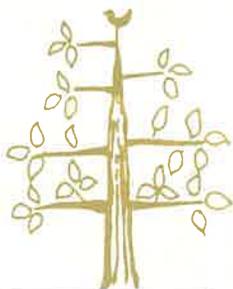
지난 주일에 제 3차 총회를 갖고, 새로운 임원으로 회장에 정규호 군을, 부회장에 이해영 양을 각각 선출했다. 회원들은 구임원들의 지난 1년간의 노고를 위로하며 친교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 사랑부

#### 다음 주일에 세례식

다음 주일(17일)에 사랑부 세례식을 거행한다.

교회에 떠나 집에 돌아갈 때에, 공부하는 도중에도 선생님들의 보살핌이 전적으로 필요한 사랑부 학생들은 좀더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함께 공부하며 도움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 ■ 기도



## 뜻이 이루어지이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훈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인생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로 닮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며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계명을 정금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옵시며  
예수 안에서 남자처럼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게 하옵시며  
마음의 무릎을 말씀 앞에 조아리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기 위해 기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야곱이, 여호수아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저희도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항도적 사명을 바로 깨닫게 하옵시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 생명의 길을 잘 제시하는  
시대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21세기를 바라보며 종교개혁의 가치를 새로이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위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선지자와 사도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되게 하소서.  
북한 땅에서도 목회자 세미나와 김치 세미나 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예배당 지을 터를 보여주셨으니 무한 감사하오며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박분옥 (집사, 3교구)

### ■ 제 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 ② 9월 10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이종윤 목사)  
제 2교시 /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인성상실과 그 대안(김영한 목사)
- ③ 9월 18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이종윤 목사)  
제 2교시 / 음란 매개체에 의한 인성상실과 그 대안(김용진 박사)

###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상」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 50분  
아세이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2. 제 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4.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5.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위치

